

## 본당 소식

2024년 7월 생활말씀

“주님은 나의 목자,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(시편 23.1)”

### ♣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

- 매일 7~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!(주님 성탄 대축일까지)

### ♣ 한국 주교단 로마 사도좌 방문(Ad limina)

- 일시: 2024년 09월 16일~21일
- 사도좌 방문 후, 22일 주일에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보좌 주교님께서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십니다.
- 각 구역별로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.

♣ 7,8월 여름 휴가기간 동안 복사와 구역별 독서는 없습니다.

### ♣ 봉사자

• 계단,화장실:

### ♣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

• 봉헌금 172,40€ • 교무금 60,00€

### 전례 성가

입당 : 28 (불의가 세상을 덮쳐도)

봉헌 : 340 (봉헌)

성체 : 198 (성체 안에 계신 주님), 194 (성체 안에 계신 예수)

파견 : 24 (내 맘의 천주여)

### 전례 봉사

이번 주일(7일)	다음 주일(14일)
1독서:	1독서:
2독서:	2독서:
복사:	복사:

##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

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(Piazza T. Lucrezio Caro 7, Milano)

본당신부 : 조병진 베니노

총회장: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,총무: 변의용 베네딕토

1구역장: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: 강한 프란치스코

청년구역장: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: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: 박수정 클라라

청소년위원장: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: 김산영 올리아

## 2024년 7월 7일 (녹) 연중 제14주일

### 미사 전례

### 화답송



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자 비만을 바라나이다

○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,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. 보소서,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,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. ◎

○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,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,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. ◎

○ 자비를 베푸소서, 주님,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저희는 죽도록 멀시만 받았나이다.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, 교만한 자들의 멀시를,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. ◎

### 제1독서 (에제키엘 예언서 2,2-5)

2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,

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.

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.

3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

“사람의 아들이여,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,

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.

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.

4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.

너는 그들에게 ‘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’ 하고 말하여라.  
5 그들이 듣든,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,  
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.”

## 제2독서 (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12,7ㄴ-10)

형제 여러분,  
7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.  
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,  
나를 줄곧 찢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 
8 이 일과 관련하여,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 
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.  
9 그러나 주님께서는, “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.  
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 
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 
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.  
10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 
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.  
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.

## 복음환호송

◎ 알렐루야.  
○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 
을 전하게 하셨다. ◎ 알렐루야.

## 복음 (마르코 6,1-6)

그때에 1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.  
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.  
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.  
“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?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?  
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!  
3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,  
야고보, 요세, 유다,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?  
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?”  
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.

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 
“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.”  
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 
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.  
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.  
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.

## 보편 지향 기도

1.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  
전능하신 주님,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, 교회의 모든 구  
성원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기억하며, 어떠한 어려움도 기꺼  
이 참아 내며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.
2.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 
의로우신 주님,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, 인간의 권리와 존  
엄을 지키고 온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며 책임을 다하게 하  
소서.
3.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 
주님, 성자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니,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 운동에  
활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, 저희가 이 운동에 동참하여 새 삶의 희망을 많은 이와 나  
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.
4. 교구(대리구, 수도회)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  
사랑이신 주님, 한 해의 반을 지낸 저희 교구(대리구, 수도회) 공동체를 굶어살피시  
어, 새해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되새기고,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계획한 일들을 실  
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.

## 성체 후 기도

주님,  
성체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 
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 
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.  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